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해외투자과장 박진서 과장(203-4090), 김민혜 사무관(203-4093)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우리 경제에 활력 불어 넣는다"

- 트렉스타 등 12개 국내복귀기업, 지자체와 투자협약(MOU) 체결
'18년까지 약 1,300억원 투자, 900여개 일자리 창출 -

1 산업통상자원부와 5개 지방자치단체는 **중국 등 해외에 진출했던 신발, 섬유, 전자부품 업종 12개사와 국내 복귀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 이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로 **'18년까지 약 1,300억 원을 투자하고, 900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이 기대된다.

<투자 협약식 개요>

○ (일시/장소) '14. 9. 24.(수) 14:00~14:50/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프라자(KOTRA IKP) 1층
○ (참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부산시 경제특보 등 5개 지자체 대표, 코트라 부사장, 유턴 기업 12개사 대표 등

2 국내복귀기업 투자협약이 **노동집약적 산업(신발, 의류)부터 기술 제조업(전자, 기계)까지** 다양한 업종이 참여해, **국내복귀 붐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신발 업종의 경우, 작년 4개 기업의 집단 복귀에 이어 올해도 **국내 신발업계 대표기업인 트렉스타 등 4개 기업이 연이어 집단 유턴을 결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 **과거 기업들의 해외 이탈로 힘을 잃었던 지역 산업**이, 국내 복귀를 **기회로 재도약할 가능성**을 마련됐다.

3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역별로 국내 복귀 **기업 '프로젝트매니저(PM: Project Manager)'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산업부는 9. 24.(수) 양재동 코트라(KOTRA) 에서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 등 5개 지자체 대표*와 박진형 코트라 부사장, 국내 복귀기업 12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한 투자협력 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 부산 경제특보, 세종 경제산업국장, 충남 경제통상실장, 경북 투자유치단장, 인천 서비스산업유치과장

□ **협약 체결식**에 참여한 12개 기업은 코트라와 **지자체가 중국 등 해외 현지에서 유치 활동을 통해 발굴**한 기업으로

○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성 악화, **한국·미국,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관세효과** 등 국내 수출여건 개선, 해외 거래처들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선호도 증가** 등에 따라 국내복귀를 결심했으며,

○ **부산, 세종, 충남 등 5개 지역으로 복귀**해, **'18년까지 약 1,300억원을 투자해, 9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국내복귀 기업, 왜 다시 한국행을 선택했는가? >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자체 브랜드의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유턴을 결심하였음. 최근 거래처에서도 Made in Kore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고, 수출시 한·미, 한·EU FTA로 인해 관세 효과도 누릴 수 있어 국내 생산시설 증설을 통해 국내에서 기능성 아웃도어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 (트렉스타, 신발)

"중국 법인에서 그동안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 중국에서 조립후 한국 모법인으로 다시 들여와 국내 내수용으로 판매해 왔는데, 중국의 숙련공 인력난과 인건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생산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효율면에서 한국 법인에서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유턴을 결심하였음" (A사, 기계)

□ 이번 **투자협력 협약**을 통해,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 외에도 기술 제조업인 전자, 기계 등 업종이 다양**하고, **복귀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되어, 국내 복귀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귀지역과 업종: 부산 4개사(신발), 세종 3개사(기계2, 전자부품1), 충남 3개사(기계, 의류, 섬유), 경북 1개사(전자부품), 인천1개사(의류)

□ **주목할 만한 국내 복귀 사례**로, **신발 업종에서** 지난해 4개사가 다시 복귀한데 이어 올해 **4개사가 추가로 집단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 특히, **국내 고유 상표 대표기업인 '트렉스타'가 '투자협력 협약'에 참여**함으로써, 지난해 '**투자협력 협약**'을 체결한 **학산, 보스홀딩스 등 국내 대표 신발 기업들이 국내 복귀 대열에 합류**했다.

○ 신발 기업의 연이은 집단 국내 기업 복귀은, **익산 보석(주얼리) 기업 집단 유턴 사례**와 더불어, 10여 년 전 기업들이 해외로 대거 이탈하면서 힘을 잃었던 **지역 산업이 그 명성을 회복**하고, **해당 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부산 신발 집적화 단지 조성 현황
-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약 8만㎡ 규모로 조성 추진 중('14.하 준공예정)
이며, 부지 조성이 완료된 이후 학산 등 유턴 기업 착공 예정임.

□ **'12년 익산시와 '유턴 MOU'를 체결**한 국내 복귀 선도기업인, 보석 유턴 기업은 현재, **익산 제3산단에 '주얼리 클러스터 조성'**을 진행 중이다.

○ 최첨단 도금 설비 등을 갖춘 '**주얼리 공동 연구개발(R&D)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보석 부자재 등 협력업체가 동반 입주할 '**주얼리 집적화 센터**'**를 '15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 또한, 패션 체인 등 **우선 착공한 8개 기업은 하반기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생산을 시작**한다.

□ 행사에 참석한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축사를 통해

○ 최근, 국내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국내 복귀 **기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 기업 스스로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의 국내 복귀 **성공사례를 창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내 복귀 기업의 조기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조금, 해외인력 수급 등 지원 제도 보완을 위해 '유턴 활성화 추가대책('13. 12.) '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13.8월 제정, '13.12월 시행)

○ 정부는 앞으로 자금, 인력,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 **지역별 국내복귀기업 기업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해외 사업장 청산, 국내 정착부터 앞으로 고부가가치화 단계까지 1:1 애로 관리**를 통해, **수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고자료】 유턴기업 국내투자 및 고용계획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김민혜 사무관(☎ 044-203-40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유턴기업 국내 투자 및 고용계획

	기업명	복귀지역	업종	국내투자계획 (억원)	고용계획 (명)
1	A사	부산	신발	100	300
2	B사		신발	100	87
3	C사		신발	60	10
4	D사		신발	160	70
5	E사	세종	기계	56	60
6	F사		기계	45	55
7	G사		전자부품	50	50
8	H사	충남	섬유	30	30
9	I사		의류	5.5	30
10	J사		기계	50	30
11	K사	인천	의류	230	55
12	L사	경북	전자부품	400	200
계		-	-	1,286.5	977